

# 목포 유달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다음달 학술용역 실시  
7월 중 명승 지정 신청서 제출  
30억 투입 목재체험장 조성도



유달산 일등, 이등, 삼등바위를 그대로 축소한 미니어처 '산수경'이 자생식물원 유리온실에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유달산과 삼학도다. 목포시가 이 유달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목포시는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유달산을 국가지정문화재 7가지 가운데 하나인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종류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중요민속 문화재 등 7가지다.

목포시는 일등·이등·삼등바위와 노적봉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다도해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달산 봉수를 비롯해 노적봉, 일제감정기 불상, 이난영 노래비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민속의 흔적이 남아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뛰어난 점을 꼽았다.

또 시는 명승으로 지정될 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반경 200m

이내 신축·증축·개축 등 고도제한) 등 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명승지정 신청 시 유달산 일주도로를 기준으로 위쪽만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목포시 도시문화재과 관계자는 "오는 6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7월 중으로 명승 지정 신청서를 전남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유달산 달성공원 인근에 있는 자생식물원 유리온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이 사업은 낡고 오래된 기존 시설을 없애고 면적 120㎡에 사업비 7800만원을 들여 유달산 일등, 이등, 삼등 바위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한 미니어처를 설치한 것이 골자다.

이 미니어처의 이름은 '산수경'으로 소나무 등 116주가 식재돼 있다. 기존에 유리온실에 있던 수목 36주와 초화류 179본은 그대로 산수경에 이식됐다. 산수경이 개방되면서 색다른 볼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유달산 국가지정문

화재 추진에 맞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달성주차장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989㎡)로 건설되는 목재문화체험관에는 목공 카페(갤러리), 실습장, 목공강의실, 유아목재 놀이터, 전시실, 목공에 강의실, 전통놀이 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선다. 야외에는 야외 목재 놀이터와 힐링 숲 체험 공간 등이 조성된다.

그네·미끄럼틀·모험놀이대 등이 들어서는 목재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목재의 촉감을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놀이시설이 순수 목재로 만들어진다.

시는 체험장과 관련해 목재체험장 이용 계층 타격을 정해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이후 관리비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목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조성으로 유달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3월 공사에 들어가 11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달산 목재문화체험관은 내년 3월 정식 개관 예정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삼학도 테마정원 조감도.

## 삼학도 '가족+자연' 테마정원으로 꾸민다

34억 투입 목포 대표공원 육성  
시민 참여 나무심기 운동도

되며 현재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사업'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삼학도에 꽃과 나무, 숲이 풍부한 섬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계절 찾고 싶은 섬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담아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낭만 항구 목포의 대표적 섬 삼학도를 사계절 꽃 피고 가족과 자연이 하나 되는 '체험형 테마정원'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신년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테마가 있는 삼학도 정원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삼학도 테마경관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해양관광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도 테마정원의 3대 키워드는 '꽃피는 안전한 섬', '어린이 테마파크', '공존의 숲' 등이다.

'목포의 전설이 담긴 낭만과 바다 그리고 꽃이 함께하는 섬으로,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어울려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의 삼학도, 복원된 삼학도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야기 숲길' 등 세 가지 의미가 담겼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34억원이 투입

되며 현재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사업'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연말 요트마리나 입구, 삼학교 입구, 바다과학관 앞,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 중앙공원 가로변, 대삼학도 입구 등 총 6개소(3500㎡)에 테마정원을 조성했다.

장소마다 특색을 살리고 포인트가 되는 위치에 계절을 대표하는 다년생 꽃과 잎이 아름다운 초화류로 테마정원을 꾸며 차별화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목포소방서 집중 홍보 펼쳐

SNS 등 각종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23일 오후 2시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역, 전통시장 등 7개소에서 '설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목포소방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을 찾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펼친다고 밝혔다.

주택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구구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전광판과 언론,

장소마다 특색을 살리고 포인트가 되는 위치에 계절을 대표하는 다년생 꽃과 잎이 아름다운 초화류로 테마정원을 꾸며 차별화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거동 불편 어르신들 "빨래 걱정 끝"

목포시 '이동 빨래방'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집까지 찾아가 해소해주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목포시는 이달 말부터 지역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1만357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사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 대형빨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선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목포지역자활센터 연합모금 MOU를 체결한 이후 차량구입에 필요한 93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초과된 1억1400만원이 모금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차량 구매

약을 체결하고 제작에 들어가 최근 빨래방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 차량은 1.2t 규모로 세탁기 21kg 2대가 탑재돼 있다.

특히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은 기존의 자활근로 만들레사업단을 활용해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행원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빨래방 차량은 목포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연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빨래방은 세탁은 물론 소외계층들의 안부도 살펴 드리는 이웃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목포시의회 올해 키워드는 '협치'

김휴환 의장, 상생 강조 눈길

목포시의회가 달라졌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부터 목포시와 '협치'를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휴환(사진) 목포시의회 의장은 제 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폐회사를 통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의미의 '줄탁동시'의 고사 성어를 인용하며 "목포시와 시의회, 목포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목포시의회도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해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목포시의회가 새해 들어서면서 '협치'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민선7기와 11대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접어드는 만큼 '상생과 동행'을 화두로 삼아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목포시가 펼친 낭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 국



제출로시대 목포 등 적극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 정책의 성공을 지켜주면서 "목포시가 미래 먹거리로 관광, 수산식품, 신재생에너지 등 3대 전략산업을 앞세워 6대 청사진을 제시해 희망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견제와 감시가 주 기능이지만 목포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김 의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 1천만 관광도시 목포 건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면서 '목포사랑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동참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호 [www.woori-hospital.com](http://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